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 귀성제염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실태를 료해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하초염수로 소금을 생산하는 방법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애로와 난관도 많았지만 인민군대는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나라의 소금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으며 당군의 본태를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정책관철은 인민군대처럼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누가 보건말건 스스로 일감을 맡아안고 뚝쳐나서 뚝악발과 세찬 바람속에서도 당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감으로써 우리

나라 소금공업력사에 하나의 분수령을 마련하는 빛나는 성과를 이룩한 군인들에게 대단히 수고들이 많았으며 높이 평가했다는 자신의 인사를 전해 달라고,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은 시작에 불과하지

만 전망이 확고하며 소금문제를 풀수 있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계속 앞장에서 소금산, 백금산을 높이 쌓아가는것과 함께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소금생산은 식량생산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이며 마음먹고 달려붙어 투쟁한다면 능히 자급자족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소금생산부문에서는 소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소금을 원만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본사정치지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 김일성경기장개건보수공사를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경기장개건보수공사를 성실성으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간호원 김영순은 당의 뜻을 받들고 봉사장에 달려나온 첫날부터 건설자들에 대한 전장치료전투를 힘있게 벌리면서 로력적, 물질적지원에 앞장섰으며 응급수술팀으로서 로동자 희유성도 환공의 난을 앞당기는에 이바지하는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하였다. 평양연극영화대학 로동자 박설경은 가정부인이지만 70일전투 전기간 봉사장에서 야간지원직종로대원으로서 총성의 구슬땀을 바치면서 어려지에 힘입는 지원사업을 벌여 집단의 사랑을 받고있다. 제신성 산하단위 기술준비원 김진희는 야간지원직종로대원으로서 적극 참가하였으며 봉사에 필요한 기공구들과 후방물자를 마련해줌으로써 건설자들이 총성의 70일전투를 위훈으로 빛내이도록 떠밀어주었다. 속도전정년들격대 참모 김진주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나뉘지는 전투현장에서 불굴대원들을 실천적모범으로 이끌어내면서 그들의 생활에 친혈육의 정을 기울여왔다. 김일성경기장을 제육강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변모시켜 위대한 수령님들의 명도업적을 만드는데 있어 빛나고 일념이고 중앙은행 부원 박철준, 대성은행 부원 박주혁은 많은 공과와 자애, 후방물자를 마련해가지고 공사장을 찾아가 철야근로를 다그치는 건설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었다. 우리 인민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겨안은 재취공업성 산하단위 부원 김주향의 성의있는 지원도 건설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단겨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간직하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결사판탈하기 위한 투쟁에 한몸 다 바쳐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는 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상영되겠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은 경애하는 현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의 사업총화보고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고 당대회는 김정은각하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고, 김정은각하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역사적사건이다. 이것은 그이에 대한 조선의 전체 당원들과 군인들, 인민들의 무한한 신뢰와 다함없는 호의의 표시라고 격찬하였다.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근로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혁명적당으로,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시였으며 온 사회를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당대회 보고에서 조선로동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사회주의위업완성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과업들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조선에서의 자주, 선군, 사회주의위업을 이룩하려는 조선인민의 의지를 드림없이 제충되고있다. 제 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양골

[조선중앙통신]

# 백두산 영웅청년정신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공격전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자

【평양 5월 23일 조선중앙통신】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지어주는 심장마다에 새겨진 온 나라 인민군장병들과 청년들, 인민들이 백두의 붉은 혁명정신과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대비안, 대혁신의 만리마속도장요준비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우리 당의 품속에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명장들로 억세게 자리한 수백만 청년전위들은 당중앙이 정한 총공격전과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폭풍쳐 내달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조선청년의 영웅적기상과 본태를 남김없이 펼쳐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공격전, 총발동시키기 위한 청년전위들의 결기모임이 23일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봉제 동지와 청년동맹일군들, 근로청년, 학생청년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은 가장 숭고한 경의

를 표시하였다. 모임에서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청년들, 인민들에게 보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호소문 《만리마속도장요준비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향하여 총공격 앞으로!》를 전후남 청년총맹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낭독하였다. 이어 중앙시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문철, 김중대전기기관차합기업소 로동자 최경운,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리지항이 결의문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는 가슴마다에 받아안은 온 나라 청년전위들은 위대한 당의 명도마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 제7차대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것은 최세의 현출위인에 대한 찬탄 군민의 고결한 총성과 절대적인 신뢰심의 발현이며 당과 혁명, 조국과 민족의 단결대계를 담보하는 혁명적대경사이라고 하면서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의 돌파구를 만

청년 전 위 들 의 결 기 모 임 진 행

일장에서 열어나갈 맹세를 다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를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아가야 합니다.》 토론자들은 《전당, 전군, 전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과업판례에 총대진하여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자!》는 전투적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 당의 믿을직한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에게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모든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성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결사보위하며 수령님들의 유언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문명히 준비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현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청년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두으로 격화하며 한

말이 그대로 육탄이 되고 생세, 방패가 되어 우리 운명의 눈부신 태양을 걸사옹이하는 김정은제일결사대,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사상과 신념의 장자과 열대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청년대오안에 당의 유일적명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청년들속에 당대회정신과 사상을 깊이 심어주어 모든 청년들을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힘있게 풀리일으키며 청년시절을 혁명적수령관과 열렬한 조국애, 불굴의 신념과 무한한 계급의식, 고상한 도덕관을 기워나가는 청년혁명학교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당대회결정을 무조건 관철하여야 할 지상의 혁명과업으로 간주하고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세인을 경탄시키는 새로운 영웅청년시화물 편이 창조해나가기 만리마시대를 청년관으로 만들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오늘날의 시대정신인 백두산영웅청년정신으로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만리마속도장요준비의 정령정령을

그들은 세계를 앞서나가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두뇌전, 실력전을 힘있게 벌려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를 높여주는 기적적인 성과를 이룩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오늘의 장엄한 총진군에서 선군청년전위의 기개와 용맹을 힘있게 펼쳐 청년강국의 대전성기를 열어나감으로써 다가오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8차대회를 멋있게 맞이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중앙이 펼쳐준 사회주의위업완성의 위대한 실제도마라 주체조선의 광명한 미래를 향해 만리마의 속도로 질풍처럼나갈 참가자들의 굳은 맹세가 우렁찬 구호의 합성이 되며 주체의 최고성지의 하늘가에 메아리쳐갔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청년전위들의 결기모임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는 당중앙위원회의 뜨거운 태양의 피를 이어놓고 우리 당의 끝없는 공격정신과 자강력제일주의,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계속혁신, 계속전진, 연속공격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갈 열혈청년들의 최선의 신념과 영웅적기개를 힘있게 과시하였다.